

친숙한 집단 낯선 개인:
관계를 위한 분리의 장치들

임윤경의 개인전 제목 “친숙한 집단, 낯선 개인”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일반적 설명의 재진술로 읽힌다. 가부장제 문화에서 가족은 표준화된 집단적 삶의 형식으로 친숙하고 자연스럽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서 우리는 개인과 구별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친숙하다. 그래서 ‘나’라는 개인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딸, 혹은 누구의 아들로서 소개되는 것을 당연시 한다. 하지만 “친숙한 집단, 낯선 개인”이라는 전시 제목은 단지 한국 사회에서 표준화된 가족의 의미를 반복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에서 가족은 “친숙한 집단인가 아니면 낯선 집단인가?”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가족의 일부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개인인가?” 라는 질문의 동어 반복형 서술이기도 하다. 그녀의 두 개의 작업, “Q&A”와 “이름 던지기”는 이러한 질문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제에 의해 표준화된 출산과 양육을 수행하는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지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남녀로 구성된 이성애 부부와 그 자녀(들) 및 친족이라는 혈연적이고 성애화된 구성 형태가 그것이다. 따라서 탈-표준화된 다양한 가족의 등장이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의 해체로 간주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임윤경의 질문은 가족 자체라기 보다는 가부장제에 의한 ‘가족의 표준화’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름 던지기”에서 임윤경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공놀이 혹은 퍼포먼스를 한다. 카메라에

오인환 (현대미술가)

잡힌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인식되는 것은 두 개의 공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여보’, ‘누나’ 등의 호칭을 호명하는 순간이다. 가족의 호칭은 한 개인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대체하고 가족의 수직 및 수평의 관계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방식이다. 다음 순간 모여있던 네 사람이 점점 거리를 벌리면서 가족의 호칭 대신에 “최인옥”, “임철규”, “임윤경”, “임원석”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부를 때 ‘엄마’는 ‘최인옥’이라는 개인으로 전환된다. 즉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 숨어있던 개인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족 구성간의 분리와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름 던지기”에서 공 던지기는 호칭을 부여하는 행위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여된 호칭을 수용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족은 ‘엄마’, ‘아빠’, ‘누나’ 등의 가족의 호칭과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와 그것을 수용하는 “최인옥”, “임철규”, “임윤경” 등의 개개인이 협업하는 제도적 장소이다.

임윤경이 만든 가족에 관한 게임은 가족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거리를 발견하게 하는 장치로 보인다. 가족의 친밀함은 가족 내의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와 단절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하는 ‘결속’의 결과, 즉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가부장제 가족 윤리의 표현이다. 한편 그것은 한 명의 개인으로서의 나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나 사이에는 분리와 거리가 실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훌륭한 가족 구성원은 개인으로서 거리를 최소화하려 하지만 개인들 간의 분리와 거리가 사라진 완전체로서의 가족이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미지일 뿐이다.

“이름 던지기”가 가부장제의 가족을 재현하고 있다면 “Q&A”는 가족 제도 안의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주목하고 여성에 의한 가족의 재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Q&A”에서 상대를 번갈아 가면서 1:1의 대화를 지속하는 인터뷰 참가자들은 한국의 가정에 가사도우미로 고용된 외국인 여성 이주 노동자들, 한국으로 떠날 때 모국에 남겨졌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딸,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던 한국인 여성 고용주 그리고 그녀의 한국인 딸이다. 가사 노동은 그녀들의 관계 형성의 출발인 것이다.

“Q&A”에 등장하는 여성들 사이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주라는 차이 외에 언어, 국적, 세대 등의 차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들이 작가가 개입하는 공간이 되며 작가의 개입을 통해 여성들의 다층적인 관계와 소통의 친밀함이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노출된다. 차이에 개입하는 작가의 역할은 대화를 나누는 두 여성을 두 대의 모니터를 사용해 분리 상영하는 방식에서 시각화된다. 분리된 모니터 사이의 거리를 두고 두 여성이 순차적으로 대화 상대를 바꾸게 한 설정 또한 작가의 개입이다. 작가가 설정한 대화상대의 순차적 변경은 두 여성들 간의 관계는 물론 여성의 가사 노동을 표준화한 가정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딸에게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친밀과 자신이 돌보는 가정의 자녀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마치 자식처럼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 딸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딸과 분리되어 외국가정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고용주의 딸은 어린 시절 자신을 돌본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주 노동자로 기억하는 동시에 가족의 일원으로

기억한다. 반면에 가사도우미의 딸이 기억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자신을 돌본 엄마라기 보다는 그 역할을 유보하고 다른 가정을 돌보는 이주 노동자이다. 관객들이 엄마와 딸 또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중첩 및 교체하는 것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임윤경이 설정한 순환적인 대화 방식이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해 대화자들 사이의 차이가 강화되고 이러한 차이들이 표준화된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과의 어긋남을 드러내면서 두 여성의 새로운 관계 맺기와 협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사일을 분담했던 여성들 간의 협업, 혈연을 근거로 하지 않는 엄마의 역할, 두 명의 엄마로 구성된 가족의 탄생, 가정의 안과 밖을 설정하지 않는 여성의 노동 등이 그것이다.

산업화 단계의 아시아 국가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 것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가정을 떠나는 여성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여성들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동남아의 여성들이 모국의 가정을 떠났지만 외국의 다른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지속한다. 자신의 가정을 벗어나 가사일을 지속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정 밖에서 경제적 활동을 담당하는 남편과 가정 안에서 가사를 전담하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근대적인 성역할을 연장하는 동시에 교란시킨다. 나아가 가사 노동을 통해 형성된 여성들의 관계는 단지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가사 노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정 혹은 가부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질문을 던진다 - 가족은 혈연적이어야 하는가? 가족은 이질적인 구성원을 환형할 수 있는가? 성애화되지 않는 가족 관계는 가능한가? 가족은 지속적인 결합의 형태이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Q&A”는 가족은 혈연적 집단일 필요가 없으며 이질적인 가족 구성원이 환영 받을 수 있고, 성애화는 가족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가족은 결합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분리의 형태일 수도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들에 의해 이미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윤경은 가부장제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 그리고 여성의 노동을 즉각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가족제도나 가부장제에 내재되어 있는 비가시화된 차이들을 가능성으로 제시함으로써 타자화된 여성과 여성의 노동이 그녀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표준화한 가부장제를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은 일치와 결속이라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변혁을 열렬하게 논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 미술계에서 표준화된 가족 형태를 이탈한 다양한 가족의 출현 즉 가부장제의 변혁에 대한 문화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익숙한 현실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겐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것이 분리의 장치를 통해 가부장제에서의 여성과 가족의 현실과 변혁을 다루는 임윤경의 작업들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